

16~19일 울산서 지능형컴퓨팅 국제학술대회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전 세계 지능형 컴퓨팅 분야의 전문가가 참가하는 '제5회 국제지능형컴퓨팅학술대회(ICIC 2009)'가 16일부터 19일까지 울산 롯데호텔에서 열린다.

한국 제어로봇시스템학회가 주최하고 울산대학교 전기전자정보시스템공학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15개국 200여 명의 학자가 참가해 인공지능, 지능형 패턴인식, 진화하는 컴퓨팅 등의 분야와 관련한 15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논문은 일본 규슈(九州)대 하세가와(長谷川勉) 교수의 '로봇다운 프로젝트-일상생활 속에 함께 하는 서비스 로봇의 플랫폼', 폴란드 브라츨라프 공과대학 녹 탄 응웬(Ngoc Thanh Nguyen) 교수의 '알고리즘과 응용의 모호한 분류' 등이다.

또 한국과학기술원 권인소 교수는 '강인한 컴퓨터 비전의 기법과 응용'을, 미국 노스웨스턴대 패트릭 왕(Patrick Wang) 교수는 '지능형 패턴인식과 학습환경에서 생의학의 응용'을 각각 발표한다.

국제지능형컴퓨터학술대회는 지난 2005년 중국의 허페이(合肥)를 시작으로 2006년 쿤밍(昆明), 2007년 칭다오(靑島), 2008년 상하이(上海) 등에서 개최됐다.

leeyoo@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09-09-14 14:56 송고]